

기아챔스필드 개보수 비용 市 부담 “이게 맞나요?”

KIA, 파손 관중석 개보수 요청
기아차, 구장 건립시 300억 투입
25년 무상임대... 수백억원대 매출
지역체육발전기금 1년 2억 ‘절감’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이하 챔스필드)의 개보수 비용에 대한 광주시 예산 투입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 개보수 비용 부담은 야구장 건립 당시 광주시와 기아차가 맺은 계약에 의한 것이지만, 챔스필드에서 기아차가 매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기금 등 지역사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로 개장 10년이 되는 챔스필드의 일부 시설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보수가 검토되고 있다.

이는 KIA타이거즈구단이 챔스필드 일부 관중석 파손과 내·외부 벽면 색바래 현상으로 인한 보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가 해당 시설을 개보수할 시 들어가는 비용은 25억원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KIA 타이거즈가 비인기 구단도 아니고, 챔스필드 표도 구하기가 매우 힘들 정도로 연일 매진인데 개보수 비용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하고 있다.

이같은 의문은 챔스필드가 완공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지난 2017년에는 재협약까지 이뤄졌다. KIA타이거즈가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챔스필드는 광주시 400억원, 국비 300억원, 기아차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4년 2월 완공됐다. 당시 광주시는 기아차가 300억원을 투입한 만큼 2014년부터 2039년까지 25년동안 무상 임대를 내줬다. 이 기간동안 챔스필드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기아차가 가져가게 된다. 이에 ‘특혜’ 시비가 일었고 양측은 2017년 재협약을 맺게 된다.

재협약 내용에 따르면 챔스필드 개보수의 경우 광주시는 주요 구조부 철거 또는 설치 관련 전면 교체 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전면 교체 보수란 △노후로 인한 시설물 전면교체(창호, 외벽재, 관람석, 마감재 등) △전면 도장(방수)을 말한다. 기아차는 부분교체 보수를 담당하는데 파손에 의한 개별품목 교체 등이다.

아울러 기아차는 추가 협약과 별도로 광주시 300억원의 체육발전기금을 15년간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혜 논란은 잠시 수그러들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KIA타이거즈가 지역사회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쉬운 대목이 있다.

광주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챔스필드가 거둔 총 매출은 454억3800만원이다. 2022년에는 475억7400만원이었다. 구장 건설 당시 300억원을 투입했지만, 야구단 운영으로 인한 광고 효과 등을 감안하면 기아차가 구단을 운영하면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어렵다.



광주 경제계 무안공항 통합이전 촉구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과 광주지역 경제계 및 기업인 등이 23일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통합이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관련기사 2면 김양배 기자

특히 타 구단과 비교할 때 기아차의 지역사회 기여금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삼성라이온즈의 홈구장인 대구 라이온즈파크는 구단에서 500억원의 건축비를 납부하고도 2016년부터 25년간 매년 3억

원씩을 발전기금으로 대구시에 납부한다. 총 75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챔스필드는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경기장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관중수도 계속 증가 추세다. 지난 2014년 66만 3430명, 2015년 71만141명, 2016년 77만3499명을 기록했고, 11번째 우승을 차지했던 2017년 1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올시즌의 경우 지난 18일까지 홈경기 43경기 중 18경기가 매진을 기록하고 있다.

원칙을 발전기금으로 대구시에 납부한다. 총 75억원에 달한다.

KIA 타이거즈 관계자는 “협약서에 명

시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단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구장이 노후화되고 위험한 부분이 발생해 광주시에 보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보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챔스필드를 통해 지역민의 많은 사랑을 받는 구단인 만큼 지역 체육발전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 당선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한동훈 후보가 23일 선출됐다. 한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에 각각 출마한 친한동훈계 장동혁(재선)·진중오(비례) 후보도 지도부에 입성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전대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4차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여론조

사를 합산한 결과, 한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한 후보는 선거인단에서 62.65%(25만5930표), 여론조사 환산득표에서 63.46%(6만4772표)를 얻어 합계 62.84%(32만702표)로 1위를 차지했다. 한 후보는 1차에서 과반을 득표해, 결선 없이 당 대표로 선출됐다.

원희룡 후보는 9만 6177 표

1차서 62.84% 득표로 과반 넘겨 최고위원, 장동혁·인요한 등 선출

(18.85%), 나경원 후보는 7만4419표(14.58%), 윤상현 후보는 1만9051표(3.73%)를 얻는데 그쳤다.

최고위원에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가 선출됐다. 장동혁 후보는 20만7163(20.61%)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김재원 후보는 18만7964표(18.70%), 인요한 후보는 17만5526표

(17.46%)를 득표했다. 김·인 후보는 친 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유일한 여성 후보였던 김민전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 9명 중 득표율 5위였으나, 당헌·당규에 따른 여성 몫 최고위원으로 4위인 친한계 박정훈 후보(16만4919표·16.41%)를 제치고 지도부에 합류하게 됐다.

청년 최고위원에는 진중오 후보가 24만8744표(48.34%)를 얻어 당선됐다.

▶관련기사 6면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全南日報 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나눔테크는
생명존중의 실천으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직장과 가정, 어디서든 발생하는 심장마비 사고!
**AED(자동심장충격기)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AED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AED 역할
심실세동 또는 심실빈맥으로 인해 심정지 응급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심장의 리듬을 회복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응급장비

- 품 목 명 : 저출력심장충격기
- 사용목적 : 전기 충격을 직접 혹은 흥벽에 놓인 전극을 통하여 심장에 보냄으로써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구.

구입 및 렌탈 : (주)나눔테크 1577-8515 www.nanoomtech.co.kr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2022-GN1-28-0016 (유효기간 25.07.28)